



# 로템나무그늘교회

2022년 교회 표어

‘ 온전한 사랑으로 경계를 녹이는 교회 ‘ (요일 4:18)

- 2022. 01. 09 주현절 첫째 주일
- 오전 11시
- 친구사이 사정전 / 온라인 ZOOM

예배의 부름  
(사회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앙고백  
(다 같이)

## [로템나무그늘교회 신앙고백문]

우리는 온 세상을 다양한 모습으로 지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은혜로 새로운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한 매 순간 우리의 호흡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환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믿으며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믿습니다.

아멘

# 내가 주인삼은 모든 것

전승연

Chorus

내가 주인삼은 - 모든 것 내려 놓고 - 내 주 되 신 주 앞  
에 나 가 - 내 가 사 랑 했 던 - 모든 것 내 려 놓 고 - 주  
님 만 사 랑 해 - 내 가 - 주 사 랑 거 친  
풍 랑 에 도 - 깊 은 바 다 처 럼 - 나 를 잠 잠 케 해 - 주 사  
랑 내 영 혼 의 반 석 - 그 사 랑 위 에 - 서 리 -

찬양  
(다 같이)

## [새해를 위한 기도 - 칼 바르트]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 지 아십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이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만족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불평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평안한 사람이기도 하고  
불안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확신에 찬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  
불안에 찬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기도 하고  
반신반의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는 친척과 친지와 친구와 무리 속에 섞여 있거나  
깊은 고독 속에 있습니다.  
느긋하게 행복을 누리고 있거나  
온갖 곤경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평온하거나  
긴장으로 가득차거나 망가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는 서로 달라도  
모두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모두 멸망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같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약속해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같습니다.

새해 첫 날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를 바라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베들레헴의 별이 우리를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밝히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의 미래를 바라보고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2-12절]

2.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3.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 곳으로 길을 떠났다.

4.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 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5.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 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6.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7.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8.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9.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10.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11. 그 때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12.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설교  
(김재욱 목사님)

# “ 삼일의 여정과 이제야 ”

헌금

헌금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로 닉네임과 헌금 종류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약정, 주정, 십일조, 선교, 건축, 사랑)

카카오뱅크 3333 21 9744006

축도

- 김재욱 목사님-

1.

정부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오프라인 예배는 최대 21명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밴드의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2.

2022년 헌금 계좌가  
카카오뱅크 3333 21 9744006 (ㄱㅅ즈)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체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2022년 새롭게 약정헌금이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밴드에 별도 공지에서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

예배 후에 새가족부 모임과 말씀나눔이 잠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한 나눔도  
준비되어 있으니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후 식사 및 교제는 4인 이하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온-오프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운영위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4.

영어성경공부 모임이 매주 월요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운영위에게 연락주시면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목요모임은 방학중이며 개편 후 조만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퀴어성서주석 - 신약편  
출판을 위해 교회도 펀딩에 참여하였습니다.

남은 출간작업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개별적으로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밴드에 올라와 있는 텀블벅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파송

## [아름다운 퀴어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퀴어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미움 다툼 혐오 차별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